

제주도 갈옷의 유래 및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이 혜 선*

A Study on the History and Making Method of the Cheju Do Gal Ot

Lee Hye-sun*

Summary

In this paper the history and the making method of the Cheju Do Gal Ot were stud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al Ot is a traditional costume peculiar to Cheju Do which came from the leather clothes (Gajook Ot). The leather has been changed to woven fabrics and have been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2. In the middle age of Yi Dynasty there was the immature persimmon juice treatment in the Peninsula of Korea. It was also in China and Japan. But only in Cheju Island clothes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Gal Ot) have been worn by the great part of common people because of hot and damp weather and the shortage of fabrics and laundry water.
3. The immature persimmon juice treatment gives starching effect besides dyeing effect according to th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4. Immature persimmon juice extracted by mixer have same effect with that gained by traditional method. If the weather of the first day of dyeing is bad, the treated fabrics can be dried by using dryer.
5. While exposing to the sunlight, to moisten the treated fabrics is essential to color change.

서 론

갈옷은 제주도의 민속복식으로 농업이나 어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서민층의 작업복이자 일상복으로 최근까지 입혀져온 제주도를 상징하는

옷이다.

갈옷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이래로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고, 1971; 양, 1975; 현, 1976; 이, 1982; 손, 1986; 손, 1987; 손, 1988; 손, 1989; 김, 1991).

그래서 갈옷의 형태 및 치수, 전통적인 제작방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법, 물리적인 성질, 갈옷에 관한 제주도민의 의식 구조, 갈옷에 관계된 민속 등이 연구되었다.

그런데 갈옷의 유래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고 제작법도 현대에 맞는 개선방안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의 갈옷은 면이나 마직물로 만든 한복의 저고리, 바지 형태의 옷을 풋감즙으로 주무른 후 햇볕에 말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을 축여주면서 햇볕에 쪼여 발색시킨 옷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갈옷이 언제부터 입혀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가 제시되어 있다.

진(1969)은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이 갈옷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 입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몽고의 풍속이라고 하지만 근거가 애매하다. 지금부터 약 700여년 전한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자주 끊어짐을 민망히 여겨 감물을 염색한 결과 질기고 고기도 더 잘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낚시줄에 풋감즙으로 염색하는 풍습은 제주도에 실제로 있었다. 고(1985)는 제주도 민구 조사보고에서 「줄을 질기고 또 편편하게 하여 갈치를 낚는 도중에 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작업이 이어져야만 완전한 갈치술이 된다. 우선 그 줄에다 풋감즙으로 물 들인 후 다시 20여일 정도 썩힌 돼지나 소의 피를 바르고 나서 건조시키고 다시 그 줄을 솥에 넣어 맥을 찌듯이 찌낸 후 건조시켜야 완전한 갈치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 번 만들어 놓은 줄은 20여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일년에 한 번 정도는 풋감즙이나 돼지나 소의 피를 칠해줘서 건조시켜야 하고 또 이 줄은 자리잡이 어로에서는 '버릿줄'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유사한 민속이 일본의 오끼나와에도 있다(上江, 1980).

이와 같은 사실에서 섬유에 감즙으로 염색하거나 동물의 피를 발라주는 풍습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강도(tenacity)와 강경도(stiffness)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1982)은 제주도사농고에서 고려 우왕 8년(1382)에 운남양왕의 태자와 그의 자손을 비롯함

많은 종자들이 따라와 제주에 묘족(苗族)이 살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풍속인 갈옷이 제주에 전해진 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증세에도 柿帷에 관한 기록이 있다(網野, 1986; 勝保, 1982). 일본 증세때 반란을 일으켰던 一揆勢의 지도자 및 추종자들이 천민복(非人服)인 柿帷를 착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물들이 옷인지 단지 柿色の 옷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1982)는 이조 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50여년 동안 시신과 함께 관 속에 들어있던 면직물이 풋감즙으로 염색된 것임을 확인하고 감물염색법이 350여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원대정군지의 畵圖전설 중에서 강위빙의 柿衣免禍에는 갈옷이 제주의 농부 옷이며 서울의 刑官이 처음으로 갈옷을 본 데 놀라서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고 하였다(고와 박, 1968).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생활상태조사에도 남녀 모두가 여름철에 麻布製의 單衣(柿澁を施したる赤褐色のものが多い)를 착용했다고 되어 있다(조선총독부, 1929).

이상은 갈옷이 면이나 마직물에 풋감즙으로 염색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김(1990)은 갈옷이란 명칭이 가죽옷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皮衣문화권에 속하는 제주도에서는 주호시대 이래로 개가죽 돼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한반도의 농경문화권으로 통합된 후에 변용되어 직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여 입게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가지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갈옷이란 말이 제주도에만 있으며 가죽옷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갈옷은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의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감물을 들여 입게된 시기는 이조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육지에도 감물들이는 풍습이 있었지만 전승되어 오지 않은데 반해 제주도에서 전승되어 온 것은 제주도에 목화가 귀했으며(김, 1601), 세탁할 물도 귀했던 풍토적 여건때문이었다고 본다.

위에서 갈옷의 유래에 관해서는 검토해 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옷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일련의 연구중 현대에 맞는 갈옷의 제작법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0905)로 쓰이는 백면포, 백전포를 사용하였으며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험포

시험포는 한국의류시험검사소에서 제작되어 섬유류 제품의 염색건뢰도 시험용 청부 백포(KSK

2) 감

제주도 조천읍의 한 농가에서 구입한 토종감의 즙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감의 형태는 Plate 1과 같으며 작고 씨가 많았다(김, 1601).

감 한되기는 1.25kg으로 감의 갯수는 70개 정도였으며 감씨가 굳기 이전의 것이 감즙염색에 적당하다(손, 1987).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Materials	Weave construction	Thickness (mm)	Yarn number		Fabric count (ends×picks/5cm)
			warp	weft	
100% cotton spun yarn	plain	0.331	30'S	36'S	142×136
100% silk filament yarn	plain	0.078	21 D	21 D	276×192

2. 실험방법

1) 감즙처리포의 제작

1991년 8월 6일~8월 30일에 걸쳐 감즙처리포를 제작하였다.

면직물과 견직물에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감즙을 추출하여 옷감이 완전히 젖도록 한 후 풀먹이듯 주물러서 햇빛에 9일간 물을 축여주면서 발색시켰다.

전통적인 제작방법은 음력 6~7월에 풋감을 따서 바로 즙을 내어 사용해야 하며 첫날 햇빛에 완전히 말려주어야 하므로 날씨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3가지 방법으로도 처리해 보았다.

첫째 믹서를 사용하여 감을 으갠 후 즙을 내어 나머지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둘째 감즙으로 주물러준 후 햇빛에 건조시키는 대신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전통적인 방법대로 햇빛에 적어 발색시켰다. 이 경우 감즙

으로 처리한 첫째 날은 건조가 끝난 다음 햇빛에 쬐이지 않고 실내에 보관하였다.

셋째 감즙으로 주물러 햇빛에 건조시켜 9일간 발색시키는 과정에서 물에 적시지 않고 마른채로 발색시켜 보았다.

2) 전자현미경 관찰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원포 및 감즙처리포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3) 색차측정

색차시험기(Spectrogard color system, Pacific Scientific Gardner Laboratory Division)를 이용하여 원시료에 대한 처리시료의 색차(ΔE)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미세구조

면직물의 원포 및 처리포의 외관은 Plate 2와 같으며 이들의 전자현미경 사진은 Plate 3와 같다.

전직물의 원포 및 처리포의 외관은 Plate 4와 같으며 이들의 전자현미경 사진은 Plate 5와 같다.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면직물과 전직물에서 모두 감즙처리포는 섬유와 섬유사이에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햇빛에의 노출시간이 길어져도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감즙처리포의 물성실험에서 원포에 비해 강경도가 증가한 것은(양, 1975:손, 1987) 바로 이러한 섬유간의 이물질이 결합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감즙염색은 염색효과 외에 푸세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색의 변화

전통적인 방법과 그 외의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한 면직물의 햇빛에의 노출시간에 따른 색의 변화는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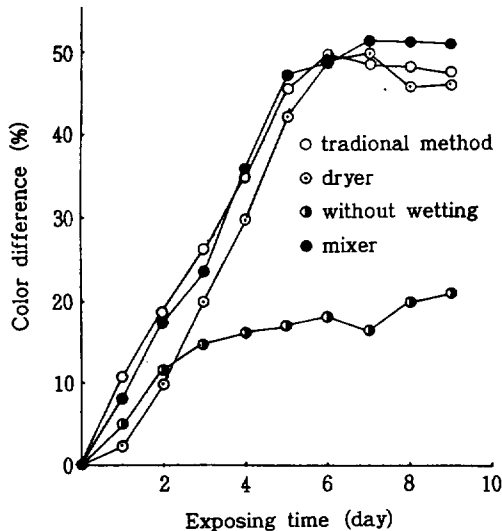


Fig. 1. Effect of exposing time on color difference in four cotton fabrics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Fig.1을 보면 대체적으로 5일까지는 햇빛에의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색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7일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후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에 쬐어 발색시키는 동안 물에 적셔주지 않은 처리포는 발색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감즙을 추출하여 염색한 것과 mixer로 감을 갈아 감즙을 추출하여 염색한 것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즙으로 처리한 후 햇빛에 말리지 않고 드라이어로 말린다음 햇빛에 발색시킨 것은 앞의 2가지 시료보다 햇빛에 노출된 시간이 하루 적으므로 색의 변화정도가 약간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감즙을 추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대로 할 필요는 없으며 mixer나 juicer를 사용해서 추출하여 처리해도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즙에 천을 주무른 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린 다음 날씨가 좋은 날 발색시켜도 됨을 알 수 있다.

감즙으로 처리한 후 햇빛에 쬐어 발색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에 축여 주어야만 색이 제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적 요

갈옷의 유래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와 조사보고, 연구 성과를 고찰해보고 갈옷의 제작방법에 관해서 실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갈옷은 가족옷에서 파생된 말로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의상이며 가족이 후에 직물로 바뀌고 동물의 피를 바르던 풍습에서 감물염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감물염색은 이조시대 증명에 육지에서도 하였다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행해졌으나 최근까지 일반 서민 대다수에 의해 의복으로 착용되어 온 곳은 제주도이다. 그 이유는 여름철의 덥고 습한 기후와 옷감과 물이 귀했던 제주도의 풍토적 여건 때문이다.

3. 전자현미경 관찰로 감물염색은 염색효과 외에 푸새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감즙은 전통적인 방법 대신 mixer나 juicer를 이용하여 추출해도 되며 염색 첫 날 날씨가 나

- 쁘면 햇빛에 말리는 대신 dryer로 말려도 된다.
5. 햇빛에 쪼여 발색시키는 동안 반드시 물을 축여 주어야 색이 진해진다.

참 고 문 헌

- 網野善彦, 1986, 異形の王權, 平凡社, p.96.
- 고광민, 1985, 제주도 민구(II), 탐라문화 제4호, p.265.
- 고병오, 박용후 共編, 1968, 元大靜郡誌, 박문출판사, p.122.
- 고부자, 1971,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김상헌 編著, 1601, 박용후 번역, 1975, 남사록, 제주도 교육위원회, p.52, 60.
- 김의숙, 1991, 제주도 목자복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김인호, 1990, 제주문화의 뿌리 14~18, 제주신문
- 김태능, 1982, 제주도사 논고, 세기문화사, p.42.
- 上江洲均, 1980, 沖繩の民具, 慶友社, p.209.
- 손경자, 1986, 제주도 갈옷의 실태조사에 대한 응용방안 연구, 석주선기념박물관지, p.37~61.
- 손경자, 1987, 감즙농도에 따른 cellulose 섬유유의 인장강도 및 색차 연구, 세종대 논문집 제14집, p.23~35.
- 손경자, 1988, 한국전통갈옷의 특성연구 I, 한국복식학회지 12호, p.108~111.
- 손경자, 1989, 한국전통갈옷의 특성연구 II, 세종대 논문집 제16집, p.9~32.
- 勝俣鐵夫, 1982, 一揆, 岩波書店, p.123.
- 양남순, 1975, 제주도 농촌 노동복의 물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1982, 이조중기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其二) 제주도, 조선인쇄주식회사, p.121~122.
- 진성기, 1969,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도 민속문화연구소, p.259.
- 현혜경, 1976,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해녀복과 농민복(갈옷)의 실물을 중심으로-, 수도사대석사학위논문

Plate 1. Immature persim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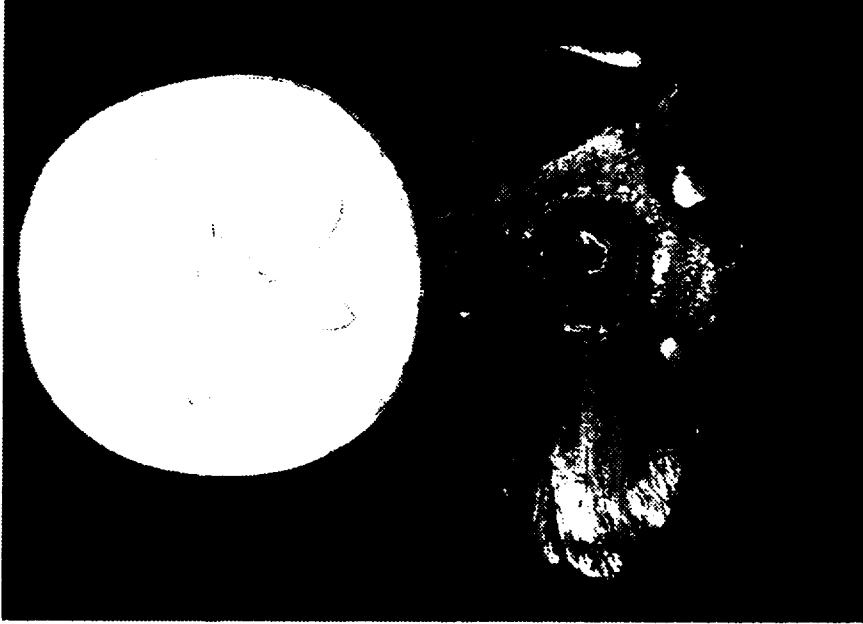


Plate 2. Cotton fabrics

- A. Cotton untreated
- B. Cotton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exposed to the sunlight for 2 days
- C. Cotton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wxposed to the sunlight for 9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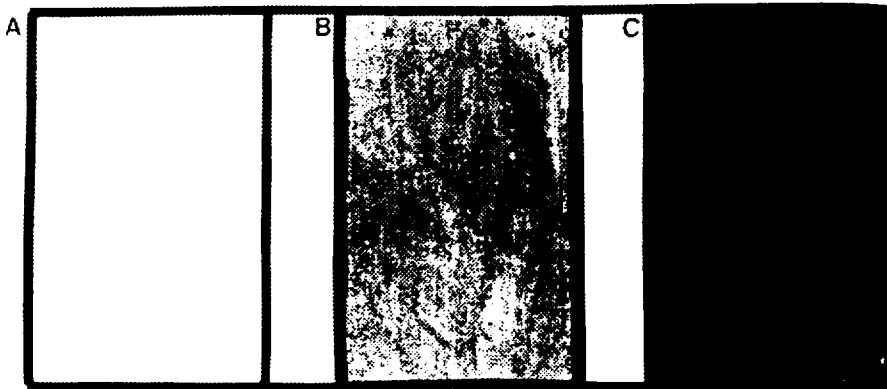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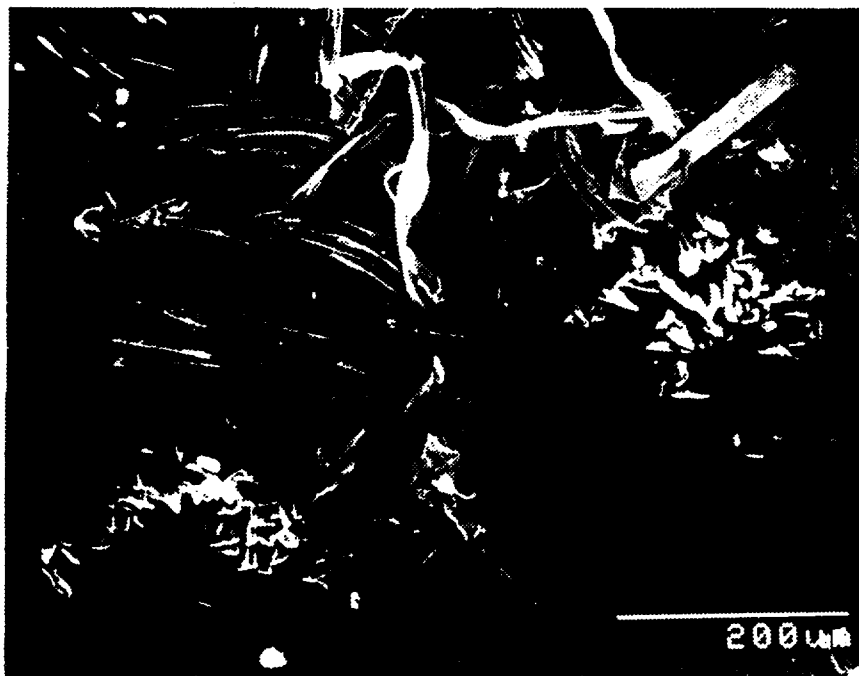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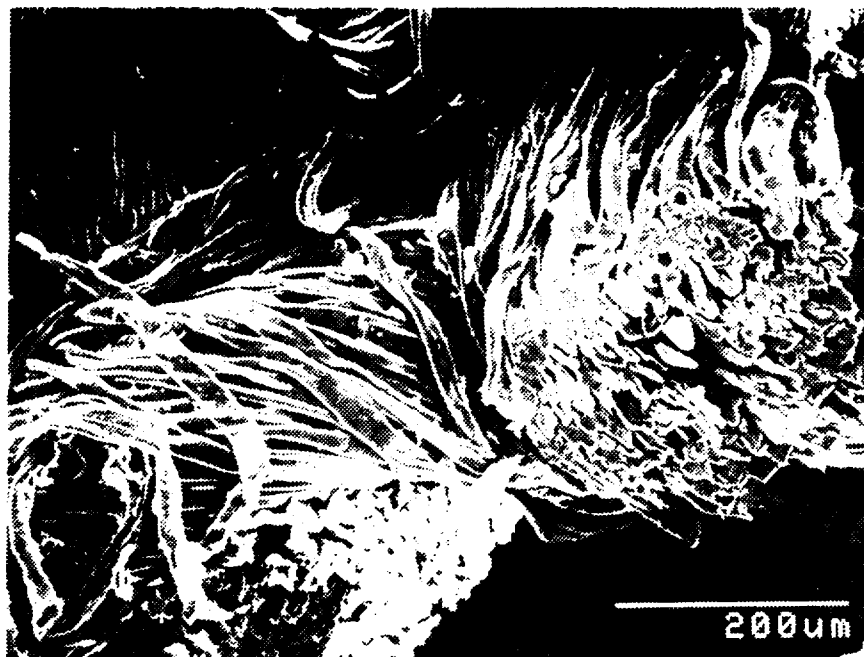


Plate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Cotton fabrics

A. cotton untreated



B. Cotton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exposed to the sunlight for 2 days



C. Cotton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exposed to the sunlight for 9 days.



Plate 4. Silk fabrics

A. Silk untreated

B. Silk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exposed to the sunlight for 9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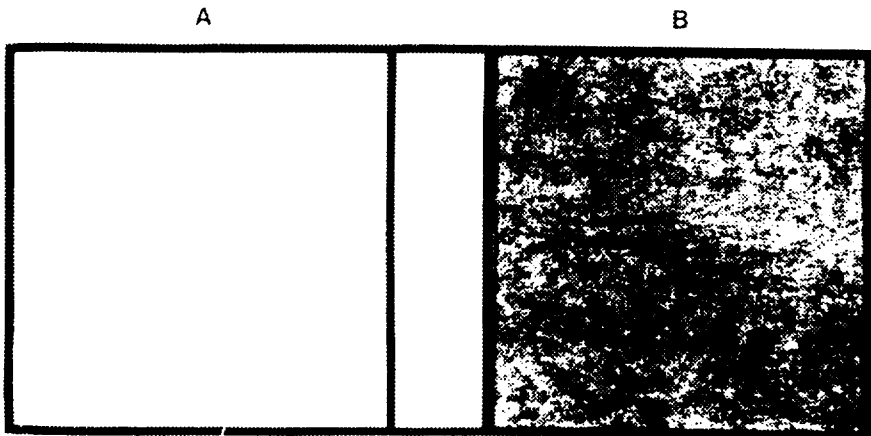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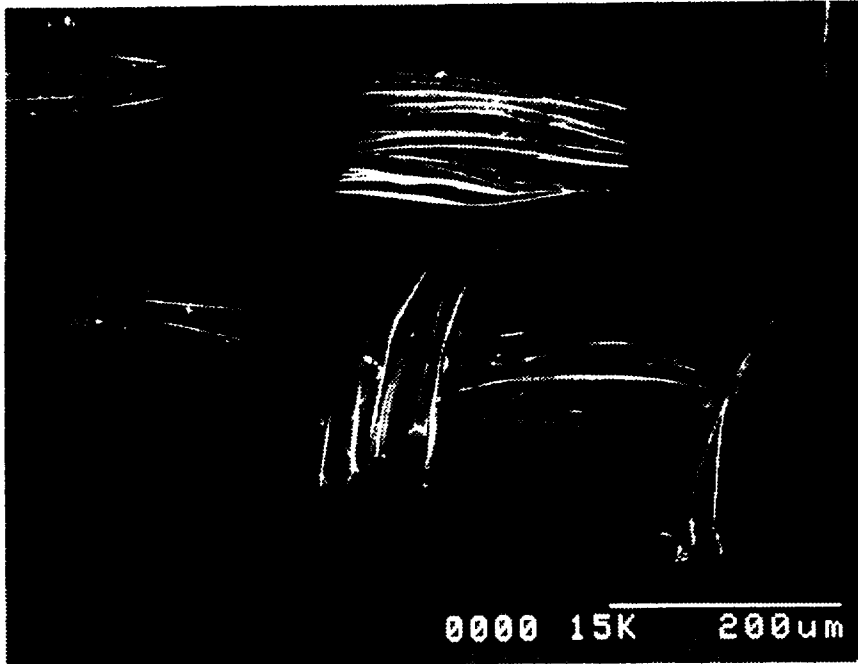


Plate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ilk fabrics

A. Silk untreated



B. Silk treated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and exposed to the sunlight for 9 days

